

편집영역서 자리굳힌 만만찮은 우먼파워

‘여성편집자모임’ 등 결성되며 당당하게 제 목소리 내

주말연속극 ‘아들과 딸’에서 소설가의 꿈을 안고 출판사에서 교정일을 보는 여주인공 ‘후남’의 모습은 이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70년대뿐 아니라 불과 몇년 전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져오던 우리네 출판사 편집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필자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원고를 간청하고 반어한 원고가 한 자라도 다칠세라 일일이 손으로 대조해 가며 교정을 보고 책을 내고서는 독자들의 반응에 전전긍긍하는.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전적으로 저자나 역자와 같은 한 사람의 필자에 의존돼 있어 편집자의 일이란 고작해야 교정보는 일밖이던 것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책을 ‘연출해 내는’ 기획출판으로 바뀌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요즘의 편집자들은 더이상 저자와 독자간의 단순한 가교가 아니다. 필력이 모자라는 저자들의 메모조각 같은 글의 순서를 깨고, 정확하고 읽기좋은 문장으로 과감히 손질하고, 보기좋은 레이아웃에 맡김한 장정을 하여 어엿한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가 하면 직접 주제를 정하고 필자를 발굴해 집필에까지 개입하는 ‘문화의 연출자’ ‘문화의 판매자’로 탈바꿈한다.

70년대의 수공업적 출판이 90년대엔 기업화나 전문화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면 70년대 여성편집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후남’은 90년대 한국출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까. 이 방정식에는 반갑게도 가장 적절한 답이 있다. ‘여성편집자모임’(회장 박숙희 풀빛출판사 편집장)이 아마 그에 해당될 것이다. 국내 유수의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여성’들의 모임인 이 조직은 몇가지 점에서 상징적인 의의를 부여받는다. 첫째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여기서 여성이란 말은 없어도 되는데)출판사 편집부장들의 ‘최초의 모임’이란 점이다. 그것은 모임이라는 형식 자체로나 모임의 내용을 통해 작금의 달라진 편집자들의 위상을 실증해주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여성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편집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한 당당한 ‘후남이’의 후예들이란 점이다.

90년 1월 결성, 알찬 내용으로 3년째 계속

지난 90년 1월 첫모임을 가진 이래 소리소문없이 올해로 3년째를 계속해 오고 있는 이 모임은 요즘도 매월 셋째주 화요일 저녁 7시만

모임의 면면만으로도 우리출판계에서 내로라 하는 명편집자의 대열에 드는 이가 적지 않은데 그런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출판편집일에 종사한 경력이 최소한 5년을 넘어야 하고 현재 편집부장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모임의 취지가 “편집자들의 역량강화”에 있었던 만큼 사사로운 개인사가 화제로 오를 적은 거의 없다.

되면 정말 불가피한 일이 있는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회원 15명이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어김없이 도착한다. 현암사 편집장 형난옥(34), 문예출판사 편집장 김혜숙(34), 웅진출판사 단행본팀 편집장 최정순(38), 풀빛출판사 편집장 박숙희(34), 서광사 주상희(36), 전편집장을 비롯해서 이동숙(34, 프리벨 편집장), 오연조(31, 서적포 편집장), 이덕희(35, 전동년 기획부장), 지미정(33, 예경 편집장), 김윤경(33, 역사비평사 편집장), 한승희(33, 동광출판사 편집장), 고혜숙(31, 청년사 편집장), 강선미(34, 전동년 편집장), 백완승(36, 논장 편집장), 양계성(33, 다섯수레 편집장) 등이 그들이다.

그 면면만으로도 이미 우리 출판계에서 내로라 하는 명편집자의 대열에 드는 이가 적지 않은데, 그런만큼 가입의 조건이 까다롭다. 최소한 출판편집일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을 넘어야 하고 현재 편집부장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들은 출판의 꽃이라는 단행본 출판사의 편집장들이란 공통점을 빼놓고는 몸담고 있는 자기출판사의 주력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모이면 더 할말이 많고 배울 것이 많아 이 모임만큼은 열일을 제쳐두고 참석한다고 한다. 처음부터의 취지가 “편집자들의 역량 강화”에 있었던 만큼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한 사사로운 개인사가 화제로 오르는 적은 거의 없다. 구성원로나 모임의 성격이나나 프로다운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이들은 그래서 한번 모였다 하면 정해진 시간인 밤 10시를 쉽게 넘기고 11시, 심지어 12시에 육박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기 일쑤다.

이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왼쪽부터 지미정, 오연조, 허나 건너 이덕희, 형난옥, 이동숙, 주상희, 박숙희, 김혜숙씨.

이들이 얼마나 편집자로서의 자기연마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회의진행은 여느 세미나장과 흡사하다. 회원 한 사람이 이미 정해놓은 특정주제에 관해 발제발표를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개인의 사례와 경험을 덧붙여가며 의문나는 것을 묻고 답한다.

지난달에는 ‘영업, 광고, 책값, 전자출판, 출판물유통’에 관하여, 1월에는 ‘기획, 편집, 교정, 제작’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밖에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기획에 반영하여 출판화할 것인가 등 편집자라면 누구나 고민해왔을 내용들이 토론의 주제로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병석(문예출판사 사장) 홍우동(동국전산 사장) 정병규(북디자인) 등 출판과 제작에 관한 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 대선배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올해도 물론 출판실무에 도움줄 외부인사의 초청이 계획돼 있고 ‘모범이 될 만한 기획사례’ ‘전문인으로서의 편집자상’ 등과 같은 주제토론과 ‘회원MT’와 같은 야유회도 준비돼 있다.

“우리가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하면 다소 겸연쩍지만 너무 외로워서였다.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 되던 편집부원에서 책임과 자리에 걸맞는 의무를 일시에 부하받는 편집장에 오르게 되면서 혼자서는 감당키 어려운 벅찬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중 중앙대 출판대학원에서 서광사의 주상희, 동년의 이덕희를 만났고 그들 역시 비슷한 무렵 편집장이 되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쉽게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모임의 첫 구성멤버였던 김혜숙씨는 이 모임을 통해 한 출판사의 데스크로서 안고 있는 고민, 여자책임자로서 타부서와의 관계를 원

활히 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 등 사내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터놓고 얘기함으로써 서로가 큰 도움을 얻었다고 말한다.

여성편집자모임의 특징을 한 가지만 들라면 출신과 전공과목의 다양함을 꼽을 수 있겠다. 「껍데기를 벗고서」 「암탉이 울면」 등의 여성학 서적을 기획, 큰 성공을 거뒀던 이덕희씨가 수도여사대(현 세종대) 화학교육과 출신인 것을 비롯해 민음사에서 9년여간을 근무하며 「민음동화」 등 아동물 기획에 두각을 나타냈던 이동숙씨가 성균관대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으며, 사회과학출판에서 청소년물로 방향수정을 해 돋보이는 기획력을 내보였던 동년의 강선미씨가 드물게도 산업미술과 출신인 점 등은 출판사의 일이라면 으레 국문과와 같은 인문학 출신들일 거라는 통념을 과감히 부순다. 이들뿐 아니라 나머지 회원들도 국문과 출신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회학과, 공예과, 사회생활학과, 생물학과, 신방과 등 다양한 전공을 보이고 있어 흥미를 끈다.

‘편집자가 뽑은 좋은 책’ 등 할일 태산

이들에게는 시간과 여력이 없어 못할 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그 가운데는 조만간 실천에 옮길 것이 몇가지 있다.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에는 잘 썬어낸 논문처럼 깊이있는 것이 많아 그것을 책으로 묶을까 하는데, 편집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미래의 편집자를 꿈꾸는 많은 여자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사. 그밖에도 ‘편집자가 뽑은 좋은 책’과 같은 양서목록을 제시해본다든지 ‘편집자의 밤’과 같은 행사도 그들이 염두에 두는 계획들이다. — 정혜옥 기자